

성비 불균형과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장기적 전망이 어두워지자,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월 29일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중국인은 두 자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두 자녀 정책의 도입이 중국의 저출산과 사회·경제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 폐지

두 자녀 정책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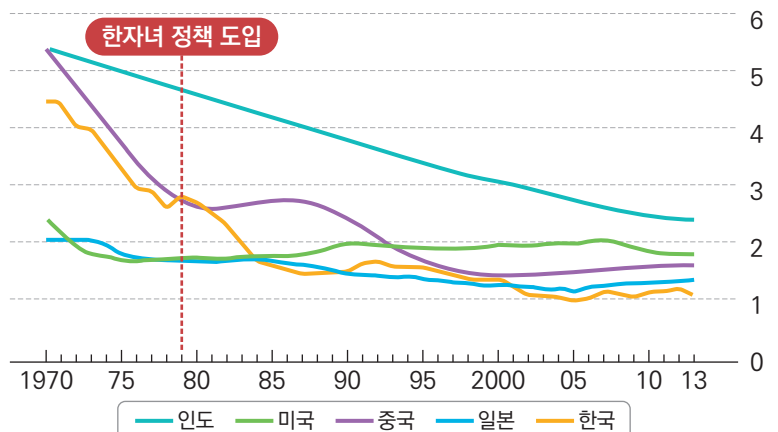
지난 10월 29일 중국 공산당은 균형 잡힌 인구 개발을 위해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안이 12월 27일 중국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01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중국 전역에서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됐다. 고령화와 성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왜곡된 인구구조로 국가의 장기적 전망이 어두워지자, 이미 느슨해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이다.¹⁾

마오쩌둥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1949년 5억 명이던 중국 인구는 1976년 9억 4천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중국 지도층은 1975년 “late, long and few”²⁾라는 슬로건을 내건 캠페인을 통해 한 자녀 출산을 촉구해 오다가, 1979년 강제적인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³⁾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이 4억 명 규모의 인구 증가를 막아 경제성장에 견인 역할을 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구학자들은 그 영향이 1억에 그쳤을 것으로 본다. 정책이 집행되기 전 이미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있었기 때문이다(1970년대 초 6이던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한 자녀 정책이 도입되기 전 3으로 떨어져 있었다).⁴⁾ 인구학자들은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오늘날 중국의 출산율이 감소한 주된 원인으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교육 개선, 만혼의 증가, 교육비와 주거비의 급격한 증가를 꼽는다.⁵⁾ 태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 거의 동일한 합계출산율 감소 동향을 보이고 있지만, 강압적인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 인도는 중국만큼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불필요했던 강압

합계출산율



출처: World Bank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향후 사회 불안과 노동인구의 해외 이주를 부추길 잠재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약한 중국에서 이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과 함께 돌봐줄 자식 없는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이 낳은 사회 문제

남아선호사상이 깊게 뿌리박힌 중국 사회에 한 자녀 정책은 여아 낙태를 통한 성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자연적인 출생 성비는 대략 103(男):100(女)에서 107:100 사이인데, 중국의 출생성비는 2000년 117:100에 달한 뒤, 지금까지 115:100을 넘어서고 있다.⁶⁾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향후 사회 불안과 노동인구의 해외 이주를 부추길 잠재 요인이 되고 있다.⁷⁾

중국인은 호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인 교육, 주거, 의료 서비스 등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런데 1,3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어둠의 자식black children”은 호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⁸⁾ 수 년 간의 소득에 버금가는 벌금을 물 수 없는 부모가 법을 피해 몰래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의 시행에 따라 이들을 호구에 등록해 주기로 약속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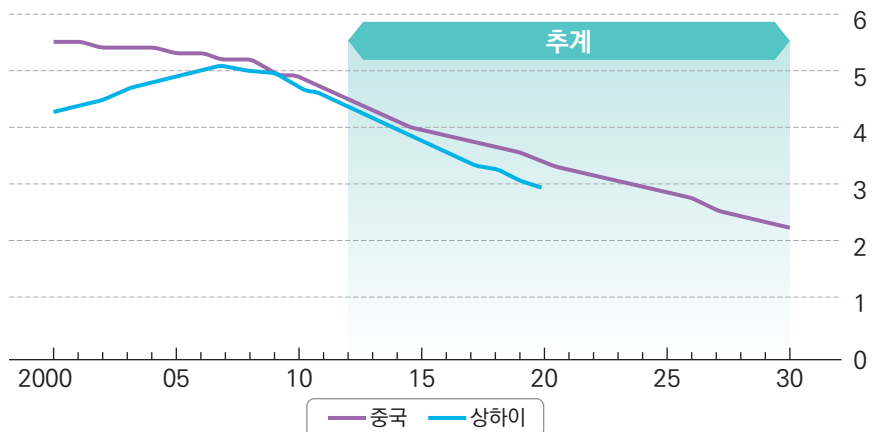
한 자녀 정책이 낳은 또 다른 문제는 “작은 황제”다. 독자(獨子)로 자라면서 부모와 조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들은 의존성이 높고 적응력이 낮은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구인 광고에서 독자에 대한 비호감을 직접 나타내기도 한다.¹⁰⁾ 사실 이들 중 상당수는 홀로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모두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중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노부모들의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 가족이 천만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안전망이 약한 중국에서 이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과 함께 돌봐줄 자식 없는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¹¹⁾

중국의 고령화

중국의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2012년에 345만 명이 줄었고, 2014년에 371만 명이 줄었다. 이런 감소 속도는 15-59세 인구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¹²⁾ UN은 2030년까지 중국에서 6,70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사라지는 반면 노인의 수는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¹³⁾ 2050년이 되면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의 노인일 것이다. 현재 5:1인 노인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0년에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 참조).¹⁴⁾

그림 2 노인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



출처: U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59세 인구/60세 이상 인구

잔인한 정책 집행

한 자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백만 명 규모의 거대 관료조직인 국가보건가족계획위원회다. 그동안 가족계획위원회 관리들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이동식 초음파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임신 여부를 검사하고, 강제로 낙태와 불임술을 실시했으며, 영아살해도 서슴지 않았다. 자녀수를 초과한 가족에게 사회유지비용(social maintenance fee)으로 불리는 벌금을 징수하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집안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들을 죄다 몰수해 갔다. 한 통계에 따르면 가족계획위원회가 징수한 벌금이 연간 3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2007년 중국 광시성 보바이시에서는 가족계획 관리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한꺼번에 여성 17,000명에게 낙태와 불임술을 실시하고 벌금으로 110만 달러를 징수해 가자, 분노한 농민 수십만 명이 쫓겨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다. 천안문 사태 이후 가장 큰 반정부 시위였다. 2012년 중국 산시성에서는 9개월 된 태아를 강제 낙태한 사실이 사진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 중국인들의 분노를 산 일이 있었다. 이 일로 가족계획 관리 2명이 해고되고 5명은 징계를 받았으며, 당사자에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만행에 가까운 정책 집행은 최근 까지도 계속되었다.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자녀 정책의 효과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어도 그 적용 대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5% 정도에 불과하다. 인구의 50% 정도는 첫째가 딸이면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10% 정도의 소수민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둘 이상의 자녀를 둘 수 있었다. 따라서 두 자녀 정책이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에 중국 정부는 이미 부모 중 한 사람이 독자일 경우, 둘째 아이까지 허용하도록 정책을 완화했다. 중국가족계획위원회는 정책 완화로 둘째 아이를 시도할 부부가 1,100만 쌍이 될 것이며, 그중 2013년에 200만 쌍이 출산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4년까지 출산 허가를 신청한 부부는 100만 쌍에 못 미쳤다.¹⁵⁾ 2009년부터 두 자녀가 허용된 상해시의 합계출산율은 고작 0.7이다. 두 자녀 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임을 암시한다.

중국인은 이미 한 자녀 정책으로 형성된 가족관계와 생활양상에 익숙해져 버렸다. 한 자녀가 주는 혜택에 대한 수십 년에 걸친 중국정부의 세뇌작업이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바꿔놓은 것이다. 호텔이나 놀이공원 같은 시설조차도 부모와 한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에 맞춰져 있다. 게다가 오늘날 중국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 한다.¹⁶⁾

여기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막중해서, 둘째 아이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Credit Suisse가 2013년에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 부부가 자녀를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평균 연간 3,600달러(중국인 도시 근로자 연간 가처분소득의 75%)가 소요 된다.¹⁷⁾

미국 인구정보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의 크리스틴씨가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2050년까지 2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두 자녀 정책 하에서의 중국의 인구성장 경로demographic path를 계산해 보았더니, 이런 긍정적인 가정 하에서도 정책으로 인해 증가할 인구는 2천3백만 명에 불과했다.¹⁸⁾

2009년부터 두 자녀가 허용된 상해시의 합계출산율은 고작 0.7이다. 두 자녀 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런 긍정적인 가정 하에서도 정책으로 인해 증가할 인구는 2천3백만 명에 불과했다.

1) "One Child Policy," Wikipedia
 2) "late, long and few": 출산을 연기하고, 출산 간 간격을 늘리고, 적게 출산하자는 뜻의 슬로건임.
 3) "China's one-child policy - timeline," The Guardian, Oct 29, 2015
 4) "Why is China relaxing its one-child policy?" The Economist, Dec 10, 2013
 5) "Too Little, Too Late, The Economist," Nov 7, 2015
 6) "One Child Policy," Wikipedia
 7) "Comments on China's move to end its one-child policy, INED, Nov. 2015
 8) "One Child Policy," Wikipedia
 9) "Chinese media fights social exclusion of those born outside one-child policy," The Guardian, Nov 25, 2015
 10) "China promises rights to citizens born in violation of one-child policy," The Guardian, Dec 10, 2015
 11) "Monks without a temple, The Economist, Mar 16, 2013
 12) Why is China relaxing its one-child policy?" The Economist, Dec 10, 2015
 13) "One Child Policy," Wikipedia
 14) "Why is China relaxing its one-child policy?" The Economist, Dec 10, 2015
 15) "Tales of the unexpected," The Economist, Nov 7, 2015)
 16) 위의 글.
 17) 위의 글.
 18) Now, the two-child policy, The Economist, Nov 7, 2015